

‘좀’의 의미와 담화 기능*

장 경 현 (조선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좀’의 실현 양상과 의미 |
| 2. 선행연구 검토 | 4. ‘좀’의 담화 기능 |
| | 5. 결론 |

국문초록

‘좀’은 ‘조금’의 준말과 다른 의미 기능을 갖고 있으며 주로 구어에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좀’을 형식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는 (1) 부사적 실현 (2) 후치사적 실현 (3) 담화요소적 실현이다. 부사적 실현과 후치사적 실현은 ‘좀’의 어휘의미가 ‘조금’의 본래 의미에서 확장되어 나타나 선행요소 또는 후행요소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담화요소적 실현은 어휘의미와 관계없이 담화 전체의 정보와 연관된 것이다. (1)과 (2)는 축소와 범위 한정 의미의 변용되어 나타나나 (3)은 공손표지와 담화표지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공손표지는 독립된 의미기능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기능이며 담화표지는 문장 어디에든 자유로이 삽입된다.

주제어: ‘좀’, 축소, 범위 한정, 해지, 간접화행, 담화표지, 공손표지, 체면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서론

국어의 부사들 중 몇 가지는 문장 내에서 문법적 요소로 기능할 뿐 아니라 문장을 벗어나 담화 차원에서 화자의 태도와 담화의 성격을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좀’은 특히 구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며 다양한 기능을 드러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해 왔다. ‘좀’은 문법적으로 정도부사이지만 화용적 요소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본래 ‘조금’의 준말로서의 어휘의미를 유지하면서도 문장 유형과 상황에 따라 이와 차별되는 새로운 의미들을 보여준다.

문법 요소들의 기능이 화용론의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현재, 특히 ‘좀’이 단순히 부사만이 아닌 담화 표지로서 주목받는 것은, 첫째로는 준말과 본말 관계인 ‘조금’과 대체될 수 없는 용법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 둘째로는 ‘뭐, 거, 참’ 등의 담화표지 및 ‘-요, -들’ 등의 담화 기능 요소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에 기인한다.¹⁾

- (1) ㄱ. 욕심 좀 부리지 마.
- ㄴ. 너 힘 좀 쓰는구나.
- ㄷ. 빨리 가, 좀!
- ㄹ. 아, 좀!

위의 예들은 ‘조금’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조금/좀’의 의미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듯 준말과 본말 관계가 뚜렷한 ‘조금’과 비교되어 ‘좀’의 독립적인 성격이 더 뚜렷해지는데, 이러한 양상은 비슷하게 담화 표지로 사용되는 ‘뭐’, ‘거’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본

1) 이영제(2004)에서는 ‘-들, -요, 좀’의 담화 상의 동질성에 주목하여 이들을 특수조사의 범주에 넣었으며 조민정(2015)에서도 ‘좀’에 대해 보조사와의 유사성을 언급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문법적 성격이 사뭇 다른 이 세 형태가 분포와 기능 면에서 동일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래의 어휘적 의미와 상관없이 담화 기능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담화의 처음이나 중간 또는 마지막에 자유로이 나타난다. 또한 (1ㄱ, ㄴ)과 같이 선행 체언에 결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요, -들’과의 유사점이 주의를 끈다.²⁾ 그리하여 ‘좀’의 담화표지적 특성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조명되어 왔다.

그러나 ‘좀’의 의미와 기능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담화표지로서의 기능 외에도 공손표지, 정도부사로서의 기능이 있고 수사의문문, 간접화행, 긍정/부정, 초점 표시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러한 ‘좀’의 복잡한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고 상당 부분 그 양상이 드러나 있기에 ‘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는 어렵다. 다만 기존의 논의들은 ‘좀’을 ‘조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인 의미 기능을 찾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화용적 기능을 중심으로 의미 기능을 지나치게 세분화한 경향이 있었다. 개별적인 의미 분석은 상세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상위범주로 묶고 정리하는 작업이 부족하여 의미와 담화 기능이 뒤섞이고 ‘좀’의 본 의미와의 관계가 거의 논의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밝힌 ‘좀’의 여러 의미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접근을 하여 ‘좀’의 의미와 기능을 새로이 규명하고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중점을 두는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의미와 기능들을 최소의 기준으로 통합하여 재정리하는 작업이다. ‘좀’의 의미 기능을 어휘 의미와 화용적 기능으로 이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분류를 할 것이다.

2) ‘-요’와 ‘-들’은 매우 다양한 분포와 기능 때문에 그 정체에 대해 조사, 접미사, 첩사 등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최근에는 형태론보다 화용론의 관점에서 담화표지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모습은 ‘좀’과 유사하다. ‘좀’ 역시 조사/후치사로 간주되기도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앞서 언급했듯이 ‘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좀’의 담화 기능에 주목하여 상당히 정교한 분석을 행하였다. 여기서는 ‘좀’의 화용적 의미와 기능에 주목한 주요 연구로 제한하여 소개한다.

‘좀’을 ‘조금’과 분리하여 본격적으로 의미 기능을 분석한 초기 연구로 손세모들(1989)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기능을 ‘들음이 배려’로 보았고 통사적 분포에 따라 공손성, 강조, 부정으로 분류하였다. 그런가 하면 구종남(1998)에서는 부사 ‘조금’이 문법화 과정을 거쳐 ‘좀’이 화용표지로 기능하게 되었고 ‘중요성의 약화’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강조가 아니라 약화로 해석하여 공손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경희(2000가: 386)에서는 ‘좀’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조금’의 준말인 ‘좀1’ 외에 다른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좀2’ : 분량이나 정도 표시를 한다는 점에서 ‘좀1’과는 공통되나 그보다 많은 분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므로 ‘조금’과 교체하기 어려움. (먹고 살 만큼 돈이 좀 있어)

‘좀3’ : 개념적 의미를 실현하지 않고 기능어의 구실을 함. ‘조금’과 교체가 불가능함.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서 기능어란 화용론적 기능만을 드러내는 담화표지 또는 공손표지를 말한다. 그 외에는 수량과 정도성을 표시하나 ‘조금’과 달리 [+]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류는 ‘좀’의 의미 기능을 어휘 단위에서 다른 범주로 각각 분리해서 기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³⁾ ‘좀’의 기능과 의미에 따라 주경희(2004)에서는 ‘좀’을 문법소와 부사로 나누어서 문법소는 첫째,

3) 이는 ‘좀’의 어휘의미와 화용적 기능을 명료하게 구분하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시했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좀’의 의미 기능은 의미적 차이뿐 아니라 형식적인 삽입 위치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유형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주관적 입장에서 관련된 상황 전개 과정이나 변화에 따른 분량이나 정도 표현, 둘째, 언어 외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관점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 (2) 가. 이 옷 어때? / 그게 좀.
- 나. 그 친구 집에 돈 좀 있어.
- 다. 공부 좀 해라.
- 르. 사과 어디서 샀니? // 사과 수퍼에서 좀 샀어요. / ?사과 좀 수퍼에서 샀어요.(구종남, 1998: 429)

박혜선(2012)에서는 (2가, 나)은 넓은 의미에서 완화라고 하고 (2다, 르)은 강화라고 하였다. 즉 ‘좀’은 ‘+’와 ‘-’라는 대립된 정도를 표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설명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동의한 분석이다. (2르)은 구종남(1998)에서 ‘좀’이 초점표지어로서 강조하는 표현 뒤에 위치하는 특성을 보이기 위해 제시한 예이다. 여기서 ‘좀’의 초점표지 기능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며 이후 목정수(2001),⁴⁾ 정선혜(2005) 등에서도 ‘좀’의 초점 강조 기능을 제시하였다.

또한 ‘좀’의 담화 기능으로 거론되는 것 중 ‘시간 벌기(filler)’ 기능이 있다.

- (3) 그 나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성격이 원래 그렇진 않지만 쯤 이케 시위가 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와서 뭐 쇠파이프 들어 옆을라면 옆고, 뭐 이런 식이거든 (세종말뭉치: 박혜선, 2012: 37)

이때의 ‘좀’은 구어에서 특정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음, 뭐, 이제, 그’ 등과 같이 주저하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된다. 노명완(1996)에서는 이런 기능을 ‘글쎄, 음, 그, 저, 자, 뭐, 저기, 있잖아, 어, 거 뭐더라, 거 뭐시냐, 거시기, 예, 예또’ 등의 주저어(hesitation fillers)로 보았다. 그러나 서희정(2006: 55)에서는 부가어(expletives)와 주저어를 구별하며 부가어는 화자의 태도를 나

4) 목정수(2001)에서는 또한 (2다)과 같은 부탁이나 요구의 경우 문맥에서 전제된 내용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타내기 때문에 ‘좀’은 단순한 주저어가 아닌 부가어이며 담화표지라고 하였다.

송인성·신지영(2014)은 담화표지로서의 ‘좀’의 운율적 특성과 기능별 출현 빈도를 분석했는데, 빈도에 있어서는 주장 약화(213회)>강조(122회)>시간 별기(73회)>공손함(60회)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⁵⁾ 여기서는 주장 약화에 관련된 예로 추측이나 불확실한 단정과 부정적 평가 약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연구자들은 후자의 경우 [부정]의 의미로 분류하기도 한다.

- (4) ㄱ. 좀 의욕은 있는 거 같애.
- ㄴ. 딱 보구서는 저놈이 좀 그렇구나.
- ㄷ. 포지션도 좋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은 좀 (송인성·신지영, 2014: 330)

(4ㄱ)은 추측이나 불확실한 단정, (4ㄴ)은 부정적 평가 약화, (4ㄷ)은 후행 발화를 지속하지 않으면서 발화 내용을 약화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좀’의 기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기능
손세모들(1989)	공손, 강조, 부정
구중남(1998)	중요성의 약화(부드러운 표현, 공손), 초점
목정수(2001)	신정보 도입 및 초점, 청자 부담 지움
주경희(2004)	공손, 함축, 지정, 부정, 강조
정선훈(2005)	공손, 초점, 발화 약화, 응답 회피
서희정(2006)	경고(요청하기1, 책망하기), 조심성(요청하기2, 제안하기, 설명하기, 제공하기), 주의집중(감탄하기, 놀리기)

5) 강조는 ‘발음 좀 똑바로 해’와 같이 선행 대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안주호(2009)에서도 ‘좀’이 선행 항목과 휴지 없이 결합되어 강조 기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송인성·신지영, 2014: 327). 이러한 특성 때문에 ‘좀’을 특수조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기능보다 선행 요소와 결합한다는 분포의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선행연구	기능
안주호(2009)	정중함, 주장 강조, 주장 약화, 얼버무리며 넘어가기(회피)
박혜선(2011)	화자와 청자를 연결하는 대인관계 결속 기능(청유문의 완화, 부정 평가의 완화, 능력/변명의 완화), 화제와 화제를 연결하는 텍스트의 응집을 위한 기능(청유문의 강조/평서문에서의 초점), 화자와 화제의 결속을 위한 인지적 기능(시간별기 기능)
송인성·신지영(2014)	공손함, 강조, 시간 별기, 주장 약화
김보영(2014)	공손(청자의 부담 경감), 주장 약화((부정적 진술) 완화), 강조(전제(공유된 정보) 부각), 시간 별기(주저)

전반적으로 ‘좀’의 담화 기능을 ‘조금’과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좀’이라는 형태가 그 기원인 ‘조금’과의 유연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그냥’도 본래의 개념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담화 전체에서 전달하는 의미를 그대로 어휘 ‘좀’의 의미로 간주하여 정확한 의미 기술에 혼란이 생길 위험이 있다.⁶⁾

또 대부분의 연구에서 ‘좀’은 구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하는데, 앞서 송인성·신지영(2014) 외에도 조민정(2015) 등 구어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조금/좀/쪼’ 등의 출현 빈도를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물론 매우 중요하고 큰 의의가 있지만 구어와 문어의 경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운용적 요소가 어느 정도까지 ‘좀’의 의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출현 빈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⁷⁾

6)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좀’이 본래의 개념 의미와 달리 [많은 양 또는 강한 정도]의 의미를 표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2에서 자세히 논하려 한다.

7) 담화 표지는 대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구어로 간주하게 되는데 대화 상황이

무엇보다 어휘 의미와 화용적 기능 간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여러 의미 기능이 복잡하게 기술되어 내재적 모순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토대로 ‘좁’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3. ‘좁’의 실현 양상과 의미

조민정(2015)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대해 ‘좁’의 담화표지적 기능이 ‘좁’의 기본 의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본말인 ‘조금’과의 의미적인 관련성이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로서, 담화표지로서 제시한 강조의 ‘좁’은 명사와 부사 뒤에서만 분포하는 점에서 본래 분포가 자유로운 담화표지와 다르다는 것인데, 이는 필자의 견해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좁’의 실현 양상과 어휘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 ‘좁’의 실현 양상

‘좁’이 발화 또는 문장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분류할 때 대략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좁’으로 인해 표현되는 의미 또는 담화 기능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통사론적인 문장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즉 공손, 수량 표현, 축소 표현, 비난 등으로 분류하거나 서술, 의문, 명령, 청유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나 축약형이 구어의 필요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발화의 상황을 표현하는 ‘구어’와 문체 특성을 표현하는 ‘구어체’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정교한 고찰이 필요하다. ‘구어’와 ‘구어체’ 구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경현(2003, 2012) 등을 참고하라. 또한 ‘좁’이 실현되는 문장 또는 발화가 대체로 명령, 요청 등 청자를 의식하는 상관적 장면에서 나타난다는 사실 때문에 구어라고 생각되지만 이 역시 절대적이라 할 수 없다.

어느 쪽도 가능하기는 하나, 의미에 따라 분류할 경우 그 의미 유형 자체를 검증해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동일한 발화가 두 개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속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분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장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도 비슷한 위험성이 있으며 ‘좁’의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송인성·신지영(2014: 334)에서는 공손함과 강조 기능은 명령, 요청, 제안, 질문의 발화에서 주로 실현되고, 시간 별기와 주장 약화 기능은 진술의 발화에서 주로 실현된다고 했는데, 이 역시 경계가 뚜렷하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간 별기가 질문이나 제안 등에서 실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5) ㄱ. 그 좁, 뭐 해야 하지?

ㄴ. 우리도 어떻게 좁 뭐 행동을 하자고.

그보다는 ‘좁’의 실현 위치와 문장 내 다른 성분과의 관계에 따라 분류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늘 ‘좁’과 공기하는 선행 요소들을 명시해 왔는데 이 또한 연구자마다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 이를테면 ‘좁’ 다음에 부정표현이 온다거나 서술어 생략이 이루어진다는 기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어느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6) ㄱ. 어떻게 됐어? / 그계 좁.

ㄴ. 아, 좁!

(6ㄱ)은 보통 부정적인 서술어가 생략되었다는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해석도 가능하다. 잘됐는데 예상과 다르다는 진술이 생략된 것일 수도 있고 이를 주저 표현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6ㄴ)은 이 발화 자체가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을 할 뿐 어떤 절이 생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좁’이 문장의 어디에 나타나며 또 선행요소와 후행요소 중 어느 쪽과 이어지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분류한다. ‘좁’은 실현 위치와 중

속관계에 따라 부사적 실현, 후치사 또는 첨사적 실현, 담화요소적 실현을 갖고 있다. 부사적 실현이란 후행 성분이나 후행절과 결속되는 것이고 후치사적 실현이란 선행 체언과 결속되는 것이며 담화요소적 실현이란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고 발화의 바깥에서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⁸⁾.

- (7) ㄱ. 세상이 좀 낱박해야지. // 이렇게 복잡하니 좀 불편해? // 제가 좀 그래서요.(부사적 실현)
 ㄴ. 오늘 일 좀 했네? // 오늘 힘 좀 쓰자. // 그것 좀 줘.(후치사적 실현)
 ㄷ. 뭐 좀, 별일은 아니야. // 아, 쯤! (담화요소적 실현)

이러한 분류의 이점은 의미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부딪히는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고 명확한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미를 판별할 때 어떤 요소가 중심이 되는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부사적 실현과 후치사적 실현의 구분이 다소 어려운 경우가 있다. 대체로는 ‘일을 좀 했네’와 같이 선행 명사에 조사가 결합되면 후치사적 실현이 아닌 부사적 실현으로 볼 수 있는데, ‘나 좀 잘게’와 같이 조사가 결합되지 않는 경우는 어느 쪽으로도 볼 수 있다. 이때는 휴지부 유무로 판단할 수 있다. 선행 요소와 ‘좀’ 사이에 휴지부를 다소 길게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부사적 실현이고 부자연스러우면 후치사적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일한 형식이 두 가지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⁹⁾

8) 이러한 실현 위치와 의미/기능과의 연관성은 절대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국어 문장 구조에서 성분부사와 후치사는 어순과 긴밀하게 연관되며 의미에 있어 의존적이기 때문에 형태변화 없이 실현되는 ‘좀’의 의미가 실현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9) 선행연구들에서는 조사적인 성격에 가깝다고 하는 사례들이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다.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휴지부로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단순명료하다. 예를 들어 ‘너 좀 마음에 든다’는 어느 쪽으로도 볼 수 있다. 휴지부를 넣어 보면 ‘너#좀 마음에 든다’와 ‘너 좀#마음에 든다’가 둘 다 가능하다.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하면 이 두 가지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심층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술의 간명함을 위해 이 정도까지만 논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도 담화 요소적 성격의 판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 (8) 가. 책 좀. (읽자)
- 나. 책 좀. (줘)

(8가)과 같은 해석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구어에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둘 다 후치사적 성격인지 아니면 (8나)은 담화 요소적 성격인지 하는 판단이 쉽지 않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화 기능의 판단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세우는 수밖에 없다.¹⁰⁾ 아무튼 이러한 실현 양상의 유형에 따라 부사적 실현·후치사적 실현에 해당하는 것은 3.2.에서 어휘의미를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담화요소적 실현은 4.에서 다룰 것이다.

3.2. ‘좀’의 어휘적 의미

앞서 ‘좀’을 본래의 어휘적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와, 본래 의미와 독립되어 나온 담화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휘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좀⁰² 「부사」

「1」 ‘조금⁰¹ [Ⅲ] 「1」’의 준말. 『 물건값이 좀 비싸다./어머니가 좀 편찮으신 것 같다.』

10) 사실 담화 기능적 성격과 다른 두 가지는 범주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또한 완벽한 분류는 아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좀’의 어휘의미가 남아서 어떤 문법 요소로서 영향을 끼치는 유형과 비교적 실현 위치가 자유롭게 나타나며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관점을 택했으므로 이에 따라 설정한 것이다. 담화표지 기능을 가진 ‘좀’은 실현 위치가 자유롭거나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거나 하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서는 (8)과 같은 경우도 담화표지로 보기도 한다.

- 『2』 ‘조금01 [II] 『2』’의 준말. 『 좀 늦었습니다.
- 『3』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말.
 『 손 좀 빌려주세요./이것 좀 드세요./무엇 좀 물어봅시다./그만 좀 해!
 갈 길이 구만리라네, 빨리 좀 가세.《김성동, 풍적》
- 『4』((주로 ‘-어야’ 앞에 쓰여))‘어지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날씨가
 좀 추워야 기동을 하지.
- 『5』((주로 수사 의문문에 쓰여))‘얼마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11). 『 둘이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니 좀 좋으냐?/그 집 짬뽕이 좀 맵니?/날씨가 좀
 춥니?/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니 좀 훌륭해요? 《김사량, 낙조》 『참고
 어휘』 여간(如干);오죽01.

기존 연구에서는 『4』와 『5』에 대해 ‘좀’이 긍정이나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키가 좀 크지’와 같은 용법과 관련지어 ‘좀’ 자체의 의미를 규정한 것인데, 이것으로 ‘좀’이 양극대립을 형성하는 두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기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위 뜻풀이에서 『4』에는 ‘어지간히’가, 참고어휘에는 ‘여간’과 ‘오죽’이 제시되어 있다. 이 단어들이 ‘좀’과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 단어들을 긍정이나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기술할 수는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오죽’과 ‘여간’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오죽01 『부사』 ((주로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겠-’과 의문형 어미를 가진 서술어, 또는 ‘-으면’ 어미를 가진 서술어와 함께 쓰여)) ‘얼마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오죽이. 『 집 안에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밖은 오죽 춥겠니?/오죽 답답했으면 우리에게까지 그런 부탁을 했겠어?/사내 녀석이 오죽 못났으면 마누라한테 쥐어살아? 『참고 어휘』 여북;좀02.

11) 주경희(2000가)에서는 이런 의미는 ‘시간이나 분량이 적게’라는 의미로 수사의문문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좀’의 고유한 의미로 다루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용법은 수사의문문이라는 형식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많은 단어의 의미가 문장 형식과 연계되어 나타난다는 언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어휘의미의 일부로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죽, 얼마나’ 등 수사의문문에서 쓰이는 단어들과 비교했을 때 ‘좀’은 의미상 이질적이므로 특별한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간 ((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 ¶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뜰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럽지 않았다./키는 작달막하나 가슴팍이 떡 벌어진 게 여간 다부진 몸매가 아니었다.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구레나룻 사내는 생긴 것과는 달리 말투가 여간 상냥하지가 않다. <<한수산, 유민>>

‘여간’의 경우 ‘좀’이 위에 제시된 용례들에 모두 완벽하게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몇몇 예는 ‘여간’과 교체되어 쓰일 수 있다.

- (9) ㄱ.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니다.
 ㄴ. ?구레나룻 사내는 생긴 것과는 달리 말투가 좀 상냥하지가 않다.
 ㄷ. 그 사내는 생긴 것과는 달리 말투가 좀 상냥한 게 아니야.

(9ㄱ, ㄴ)은 사전에 제시된 용례를 ‘좀’으로 교체한 것인데 (9ㄱ)은 자연스러운 반면 (9ㄴ)은 어색하다. 이를 (9ㄷ)으로 수정하면 자연스러워진다.¹²⁾ 이를 보면 ‘좀’은 그 자체가 긍정이나 강조라기보다는 ‘오죽’이나 ‘여간’과 같이 특정 문형에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여간’의 용례로 쓰인 문장에 강조를 표시하는 ‘매우’를 넣는다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보통’으로 교체하면 문장이 성립한다.

- (10) ㄱ. *그 남자는 생긴 것과는 달리 말투가 매우 상냥한 게 아니야.
 ㄴ. 그 남자는 생긴 것과는 달리 말투가 보통 상냥한 게 아니야.

‘매우’는 절대적인 강조 의미를 표시하지만 ‘보통’은 ‘아니야’와 공기해야 강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좀’은 ‘매우’와 교체할 수 없고 ‘보통’과 교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용법의 ‘좀’을 긍정이나 강조라고 기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12) (9ㄷ)에서 ‘구레나룻 사내는’을 주어로 삼으면 어색해지는데, 이는 어휘 자체가 문어체의 느낌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그 집이 돈이 좀 많지’에서의 ‘좀’에 대해 많은 수량 및 정도의 의미를 표시한다는 견해와, 완충 또는 축소의 의미를 표시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대립이 되는데, 의문문으로 ‘너도 알겠지만 그 집이 돈이 좀 많아?’라고 했을 때 돈이 많다는 사실이 강조되기 때문에 ‘+’ 쪽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형태소가 양극대립을 보이는 두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민정(2015: 12)에서도 ‘좀’이 긍정 표현과 함께 쓰여 ‘상당한 양이나 정도’라는 뜻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즉 ‘조금’의 준말과 독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 (11) ㄱ. 앉고 보니 좀 훨씬 전에 남자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ㄴ. *앉고 보니 조금 훨씬 전에 남자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조민정, 2015: 12)

그러나 여기서의 ‘좀’이 ‘상당한 양이나 정도’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훨씬’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기존 논의에서 ‘좀’이 부탁, 비난, 금지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기술한 경우가 많은데, ‘좀’ 자체가 이러한 가치평가를 드러낸다는 기술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조민정(2015: 18)에서는 ‘도와주라, 그만해’와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좀’이 부탁, 금지·비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좀’은 후행 동사의 의미 적용의 범위 또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이러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좀’의 의미 기능 설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좀’이 실현되는 문장 또는 발화들을 지나치게 세분해서 기술하려는 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류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의 본래적 어휘의미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기술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담화표지 기능을 제외한 ‘좀’의 의미 기능은 어느 경우든 대상이나 범위의 축소 또는 제약이라는 기본 의미에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몸매가 좀 되거든’과 같은 발화의

경우 ‘좀’을 강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매가 되거든’ 자체가 자랑이나 강조의 의미를 가지므로¹³⁾ 이에 축소의 의미를 첨가하여 형식상의 겸손 내지는 완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자에게 해석되는 담화의 최종 의미와 그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의 의미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청자에게 해석되는 담화 전체의 정보는 강조·과시겠지만 담화 내에서 ‘좀’이 담당하는 기능은 축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송인성·신지영(2014)에서 제시한 ‘좀’의 담화 기능인 공손, 주장 약화, 강조, 시간 별기를 살펴보자. 이것은 구어 담화 기능에 집중한 결과인데, ‘좀’은 담화 기능과 본래의 부사 기능을 뚜렷하게 구별하기 쉽지 않다. 명령이나 제안 등에 나타나는 공손과 주장 약화는 소극적 체면과 관련된 공손성으로 묶을 수 있다.¹⁴⁾ 그런가 하면 김보영(2014)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좀 잘못된 생각인 거 같아요/상당히 좀 힘들었어요/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등을 주장 약화로 들었는데, 주장 약화라는 용어 자체가 청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완충 기능에 함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개념이라 하기 어렵다.

강조의 경우, ‘빨리 해, 좀’이나 ‘개가 좀 살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와 같은 기존의 수사·문법이라고 보았던 용법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강조의 억양이다. 강조의 의미를 표현하는 요소들은 대체로 장음의 운율이 부여되는데 ‘개가 좀 살고 싶었으면’에서는 이러한 장음이 나타난다. 장음이 나타날 수 없는 ‘이것도 좀 해 보고 해야지 / 돈도 좀 써 보고’와 같은 표현은 최소한의 범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제한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리하면, 부사적 실현을 보이는 ‘좀’은 본래의 어휘 의미에서 나온 축소 또는 범위 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요소들과 어울려 강조, 완

13) 이런 발화는 억양도 고려해야 하고 ‘-거든’이라는 어미가 나타내는 양태의미도 의미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몸매가 되면 가능하지’와 ‘몸매가 좀 되면 가능하지’에서 후자가 더 정도가 강조된 발화로 보이지는 않는다.

14) 상대의 말에 대해 ‘그건 좀 사실과 다른데’와 같이 부정하고 반대하는 경우에는 상대의 적극적 체면을 보호하는 공손 전략으로 사용된다.

화, 비난 등의 부수적인 발화 의미에 기여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장음의 운율적 자질이 올 수 있는 ‘죌’은 강조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운율이나 문형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부사적 ‘죌’에서 강조는 독립된 어휘 의미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후치사적 실현을 보이는 ‘죌’은 다른 유형들보다 규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손세모돌(1989: 499)에서는 ‘그 담배 죌 죌 꺼’와 같은 문장을 들어 앞의 것은 ‘강조’, 뒤의 것은 ‘공손’이라고 했는데, 본 연구의 개념대로 기술하면 앞의 것은 후치사적 실현이고 뒤의 것은 부사적 실현이 된다. 문제는 ‘죌’이 한 번만 실현되는 경우 어느 쪽으로 보아야 하느냐이다.

(12) ㄱ. 담배 죌#끄지 못해!

ㄴ. 담배#죌 꺼. / ?담배#죌 끄지 못해!

ㄷ. 담배 꺼, 죌!

ㄹ. 담배 죌!

(12ㄱ)은 후치사적 실현이다. 이 경우 목정수(2001)의 견해처럼 초점 표지 또는 한정으로서 기능한다고 기술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때의 ‘죌’이 강조 기능을 갖는다고 기술한 연구들이 많으나 앞서 보았듯 강조는 운율과 문형에 따라 나타나는 부가적 기능이므로 한정이 나아 보인다. 한정이라고 하면 ‘죌’의 어휘적 의미인 축소나 범위 제한과 연관된다는 이점도 있다. 즉 담화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한정한다는 것이다. (12ㄴ)은 부사적 실현으로 요구하는 상대의 행위를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완화의 기능을 하는데, 이때 ‘끄지 못해!’와 같은 강한 표현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죌’만으로는 강한 표현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12ㄷ)은 발화의 바깥에 위치하는 것으로, ‘담배 죌 꺼’에서 위치 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요구의 강도가 다르다. 분포에 있어서나 ‘죌’의 어휘의미와의 분리성에 있어서나 이것은 담화표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ㄹ)은 실제로 나타나면 후치사적 실현인지 완화 기능을 가진 부사적 또는 담화 요소적 실현인지 구별이 쉽지 않으나 이 역시 휴지부의 위치로 판단할 수 있어 부사적 실현 또는 후치사적 실현으로 생각된다.

4. ‘좀’의 담화 기능

3.에서 본 어휘적 의미와 담화 기능의 차이는, 전자는 선행 요소의 의미를 제한하지만 후자는 담화 전체의 정보 또는 화자의 태도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는 부사 ‘조금’이 축약된 ‘좀’의 본래 의미가 확장된 것이며 후자는 그러한 본래 의미와 무관하게 담화의 층위에서 나타나는 기능이라 하겠다. 따라서 담화 기능은 ‘좀’의 어휘 의미와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4.1. 공손표지로서의 기능

이영래(1992: 32)는 ‘좀’이 명령의 언표내적 힘을 누그러뜨리며 언어 행위에 대한 협력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충족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주거나 충족되었는지를 묻는 헤지(hedge)라고 했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좀’이 공손성을 나타내며 간접화행의 기능을 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좀’을 간접화행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간접화행으로 간주되는 것은 문장 형식을 명령문에서 평서문이나 청유문, 의문문 등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경우이다. ‘좀’은 명령문에서 실현될 수 있고 의문문이나 평서문에 삽입되더라도 ‘좀’ 때문에 간접화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의문문이나 청유문 자체가 이미 간접화행을 실현한다면 ‘좀’이 삽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⁵⁾ 그리고 Brown & Levinson(1987)

15) 김희숙(1997)에서는 ‘좀’은 간접발화행위를 유발하는 표지이나 공손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며 ‘공부 그만들 하고 좀 놀시다’에서처럼 수행머뭇소(hedge) 장치로서 선행요소의 흐름을 막고 간접요청을 의도한다고 한다. 또한 ‘신경 쓰지 말고 일 좀 하세요’와 같은 문장에서는 언표내적 행위를 강화하여 강조수행머뭇소(emphatic hedge)로서 기능한다고 했다. 그러나 간접화행은 ‘놀시다’라는 청유형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강조수행머뭇소라는 해석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간접발화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선행요소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앞서 논했던 부사적 실현으로 나타나는 경계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의 공손성(politeness) 이론에 따라 해석하더라도 ‘좀’은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전략적 요소이지 간접화행이라 보기 어렵다.

다음은 어떤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실현된 ‘좀’의 예이다.

- (13) 가. 그건 좀...
- 나. 그 사람 좀.....

물론 긍정적인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는 부정적인 평가에서 이런 생략형이 나타난다. 부정적인 평가가 청자에게 부담을 줄 것을 고려하여 명료한 표현을 회피하는 완화 장치로서 ‘좀’을 쓰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뒤의 요소들이 생략되면 담화 관습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 이때의 ‘좀’이야말로 헤지(hedge)라고 보아야 한다. 상대가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데 그 정보를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완충의 표지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부사적 실현을 보이는 ‘좀’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14)도 부정적인 평가에 사용된 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 ‘좀’이 생략된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자체에 가치 평가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좀’과 결합되어 가치 평가 의미가 형성된다.¹⁶⁾

- (14) 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 / 좀 그런데?
- 나. 이거 어떻게 생각해? / *그런데?

‘좀’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약간’을 넣으면 유사한 부정적 태도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좀’을 ‘약간’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16) 그렇다고 ‘좀’ 자체가 부정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은 앞에서 밝혔다. 축소·범위 제한의 의미를 가진 ‘좀’이 완충 작용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적 해석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즉 ‘좀’이 나타나면 다음에는 뭔가 말하기 꺼려로운 내용이 올 것이라고 유추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5)에서 유사한 의미의 ‘약간’이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15) 이거 어떻게 생각해? / 약간 그런데?

(16) ㄱ.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거 좀? / 이거 약간? - 부정적 평가

ㄴ. (할 일을 내밀며) 이거 좀. / *이거 약간. - 부탁·요구

(16ㄱ)은 ‘이거 좀 이상하다/어렵다’ 등으로 해석 가능하고 (16ㄴ)은 ‘이거 좀 해 줘’로 해석 가능하다. (16ㄴ)은 ‘약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 ‘약간’은 정도나 수량의 의미가 더 명시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경우는 ‘좀’을 생략해도 명제적인 의미는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런 용법은 담화 기능의 하나인 공손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는 적극적인 체면과 관련된 공손표현이다. 즉 청자 또는 관련된 제삼자의 목표가 공동체의 목표와 일치하기를 바라는 욕구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17) ㄱ. 창문 좀 열어주세요.

ㄴ. 창문 열어주세요, 좀.

ㄷ. 좀 창문 열어주세요.

‘좀’의 공손성 기능으로 가장 전형적인 예인데, (17ㄱ)은 요청의 강도를 약화하는 반면 (17ㄴ)과 (17ㄷ)은 오히려 요청의 강도를 강화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3.2.의 (12)에서 강압적인 명령에 사용된 예를 제시하여 축소·범위 한정으로 설명했으나 억양이나 발화 형식에 따라 이것이 공손성을 표시할 수도 있다. 영어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please’가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¹⁷⁾ 번역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좀’과 ‘제발’로 구분할 수 있다.

17) 손세모돌(1988: 487~489)에서도 같은 공손표현으로서 ‘please’와 ‘좀’의 대응관계를 지적했는데, ‘please’는 요구의 수락 여부를 들을이의 의지에 맡김으로써 정중한 표현을 이루는 것이며 동사구절 앞 어디에서나 같은 기능을 가져 동사구절 앞에 오는 ‘좀’과 분포 상 차이가 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좀’이 후행 동사구절로 표현되는 요구사항을 줄여서 표현함으로써 들을이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관점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 구어 발화에서는 ‘좀’도 발화의 앞과 뒤에 와서 청자에게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분포에서도 ‘please’와 유사점이 있다. 손세모돌(1988)에서는 ‘좀’의 이런 기능을 공손이 아닌 강조로 보고 있다.

‘좀’이 공손성 표시의 기능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원래 ‘좀’의 축소·범위 한정이라는 어휘 의미에서 나온 것이나, 공손표지로서 사용될 때는 의미와 관계없이 실현 여부 자체가 중요하다. 이를 담화표지에서 분리한 것은, ‘좀’의 공손표지로서의 기능이 담화표지로서의 기능과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공손성은 청자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좀’이 가진 축소·범위 한정이 명령이나 요청을 약화시키면서 공손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손표지로서의 기능은 어휘적 의미와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 어휘적 의미가 발현되면서 동시에 화용의 층위에서 나타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4.2. 담화표지로서의 기능

담화표지(discourse marker)는 Schiffrin(1987: 31)의 연결성 개념에 따르면 담화의 의미적 결속을 위하여 담화 요소들을 하나의 담화 단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이며, 이원표(2001)는 여기서 담화의 단위란 문장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구와 단어 단위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담화표지어가 발화의 앞뿐만 아니라, 중간, 또는 끝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한다(박혜선(2011)에서 재인용). 박혜선(2011: 32)은 Schiffrin(1987, 2006)의 연결성과 Schourup(1999)에 의해 언급된 비진리조건성(non-truth conditionality)을 ‘좀’이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담화표지어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좀’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연결해 주는 중심 기능을 가지며, 부가적으로 화자와 화제의 연결을 도와주는 인지적 기능 및 텍스트상의 화제와 화제의 연결을 도와주는 기능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결성과 비진리조건성, 즉 ‘좀’이 담화표지로서 본래의 어휘의미와 다르게 실현되어 새로운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전영옥, 2002: 116)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담화표지로 보느냐는 연구자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¹⁸⁾ 여기서는 판단 조건으로 비진리조건성과 실현 위치를 설정하고자 한다.¹⁹⁾

‘좀’을 담화표지로 볼 수 있는 이유에는 실현 위치가 자유롭다는 것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담화표지로서의 ‘좀’을 좀 더 제한하여 다음과 같이 담화표지 조건을 정리한다.

- (1) 비진리조건성이 나타나야 한다. (2) 문장의 바깥에 위치해야 한다.²⁰⁾

조민정(2015: 15~16)에서는 ‘좀’의 담화표지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좀’이 생략되어도 문장 해석에 무리가 없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를 담화표지의 조건으로 설정하기는 불충분하다. 여기서 예로 든 ‘거 왜 고구마도 팍팍하면 먹기 어렵잖아요’의 ‘왜’는 본래 의문사로서 의문문의 필수적 성분인 반면, ‘좀’은 정도부사로서 본래 생략이 자유로운 수의적 성분이기 때문이다.

위의 두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만이 담화표지에 해당될 것이다.

- (18) 가. 아, 좀!
 나. 가세요, 좀.
 다. 뭐, 좀, 내가 그러니까, 좀, 뭐랄까....

(18가, 나)은 기존 연구에서 강조로, (18다)은 기존 연구에서 주저하기로 분류되던 기능이다.

18) 예를 들어, 서희정(2006: 86)에서는 안주호(2009)에서 제시한 담화표지 기능 ‘주장 약화하기’와 ‘얼버무리며 넘어가기’는 모두 완화 기능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9) Schiffrin(1987)에서는 ①문장에서의 분리 가능성 ②발화의 어두에 위치 가능 ③운율적 억양을 가질 경우 ④그 자체의 의미를 갖지 않거나 불분명한 의미를 가질 경우 등을 담화표지의 조건으로 들었다.

20) 이를 ‘분포의 제약이 없어야 한다’로 설정하기에는 ‘좀’의 분포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좀’을 담화표지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담화표지로 거론되는 ‘덜’이나 ‘-요’도 분포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데 이들에 비하면 ‘좀’은 발화의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등 더 자유롭기 때문이다.

결국 담화표지로서의 ‘좀’은 발화의 처음이나 끝 등 바깥에 실현되는 경우와 발화 중간에 수의적으로 삽입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좀’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축소된다. ‘뭐, 참, 음, 거, 그냥’ 등의 대표적인 담화표지들과 비교하면 ‘좀’은 비록 ‘조금’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나 본래의 어휘의미가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에 담화표지로 간주할 수 있는 부류가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좀’의 의미 기능에 대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그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선행연구는 ‘좀’에 대해 매우 상세한 기술과 정밀한 분석을 보여주었으나 지나치게 경우별로 분석하여 모순이 생기는 등 문제점도 나타난다. ‘좀’은 ‘조금’과 다른 용법을 보이지만 ‘조금’의 기본적인 의미와 완전히 독립적으로만 보면 ‘+’와 ‘-’의 의미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기술상의 모순이 생긴다. 또한 사례들에 맞추어 지나치게 세분화한 의미 기술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1) 부사적 실현 (2) 후치사적 실현 (3) 담화요소적 실현의 세 유형으로 크게 분류하고 각각 보다 간명한 기술을 시도하였다. 실현 위치에 따라 의미/기능을 구분해서 기술하면 사례별 기술보다 명료하고 간결한 기술이 가능하며 ‘좀’의 본래적 의미에서 확장된 어휘적 의미 (1)·(2)와, 어휘의미에서 독립된 순수한 담화 층위에서의 기능인 (3)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보였다. (1)과 (2)는 ‘좀’의 본래 의미인 축소/범위 제한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공기하는 다른 어휘들과 함께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 반면 (3)은 자유롭게 실현되면서 담화표지와 공손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여전히 각각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해석이 중복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꽤 좀’과 같이 서술어가 생략된 담화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휴지부의 시차나 억양 등

음성·음운의 층위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담화 분석 또한 다양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과 지면의 제약 상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종남(1998), 「화용표지 ‘좀’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1, 한국언어문학회, 411-434.
- 김보영(2014), 「구어 말뭉치와 한국어 교재에서의 담화표지 ‘좀’의 기능 비교 연구」,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제34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81-102.
- 김선희(1995), 「담화표지(discourse marker)의 의미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제27집, 목원대학교, 5-26.
- 김희숙(1997), 「간접요청표지 ‘좀’의 재분석」, 『언어학 연구』 제1호, 한국중원언어학회, 63-93.
- 노명완(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 목정수(2001), 「‘좀’의 기능과 문법화」, 『언어학』 28, 한국언어학회. 77-100.
- 박혜선(2011), 「담화표지어 ‘좀’ 사용 연구-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응용언어학 27(1), 한국응용언어학회, 29-52.
- 서희정(2006), 「한국어 교육에서 부사 ‘좀’의 담화 기능」,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봉논집 제39집, 51-66.
- 손세모들(1989), 「‘좀’의 상황적 의미」, 『한국학논집』 14, 477-506.
- 송인성·신지영(2014), 「담화표지 {좀}의 기능과 형태·운율적 특성의 실현양상」, 한 『국어학』 62, 한국어학회, 315-339.
- 안주호(2009), 「축약형 담화표지 ‘좀/막’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14, 한국사전학회, 199-223.
- 이원표(2001),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 연구의 실례, 한국문화사.
- 이영래(1992), 「간접언어행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제(2004), 「특수조사 ‘들, 요, 좀’의 통사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규홍(2003), 「국어 정도 부사의 화용화」, 『언어과학연구』 24, 언어과학

- 회, 143-165.
- 장경현(2003), 『문어/문어체·구어/구어체 재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어의 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 장경현(2012), 『구어와 구어체의 구분과 기술 방법 모색』, 『언어사실과 관점』 29집,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69-92.
- 전영옥(2005),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113-145.
- 조민정(2015), 『‘좀’의 의미와 기능 변화 양상 연구』, 『한국어의미학』 49, 한국어의미학회, 1-32.
- 주경희(2000가), 『‘좀’과 ‘조금’』, 『국어학』 36, 국어학회 379-399.
- 주경희(2000나). 『대화에서의 ‘좀’의 기능』, 『국어국문학』 126, 국어국문학회, 75-99.
- 주경희(2004), 『‘좀’ 문법화의 의미·화용론적 연구』, 『국어교육』 115, 한국어교육학회, 433-453.
- 최홍열(2005), 『정도부사의 유의어 연구』, 도서출판 역락.
- 한혜미(2005), 『이야기 담화에 나타나는 담화표지 사용 양상 연구』. 이해영, 김미영, 김은영, 이민경, 이정란, 이현의 외, 『한국어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Brown, P. & S.D. Levinson(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ffrin, D.(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ffrin, D.(2006), Discourse marker research and theory: Revisiting and. In K. Fischered., *Approaches to discourse particles*, Amsterdam: Elsevier Ltd, pp. 315-338.
- Schourup, L.C.(1999), Discourse markers, *Lingua*, 107, 227-265.

【Abstracts】

Meanings and functions of 'jom' in Korean

Jang Kyeon-hyeon

'jom' has semantic functions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jogeum' and appears mainly in spoken language. In this study, I classified 'jom' into three groups by forms: (1) adverbial occurrence (2) postpositional occurrence (3) discourse componential occurrence. (1) & (2) are the forms that extended from the original meaning of 'jogeum' and function as modifiers of preceding components or following components. (3) is related to informations of entire discourse. In (1) & (2), the meaning of reduction and delimiting show variations, but (3) appears as politeness markers and discourse markers. Politeness markers are the functions which are added situationally and discourse markers are inserted in sentences freely.

Key words: 'jom', reduction, delimiting, hedge, indirect speech-act, politeness marker, discourse marker, face

이 논문은 2016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3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3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